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 행복전도사 닉부이치치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태어났지만, 지금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여도 거기에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성공할 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를 볼 때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느지를 새삼 깨닫곤 합니다.

# 마음으로 그리는 화가 박환



박환은 교통사고로 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빛조차 구분할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눈 대신 손 끝의 감각으로 수없이 선과 색채를 매만져가며 그림을 그려 냅니다. 박환의 화려한 색감의 풍경화는 절망을 넘어선 희망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 삶을 여행하는 맥데이빗



맥데이빗은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쓴 여행기를 책으로 낸 여행전문 작가입니다. 그는 매년 세계의 오지를 떠나 여행하고, 동기부여 강사로서 강연하는 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늘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의 어려움도 이젠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여행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 이승복의 다른 금메달



이승복은 원래 체조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목을 다쳐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는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의대를 거쳐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전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또다시 척수신경과를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금메달을 향한 그의 도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